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단 ‘미추홀의 음식’ 기록				
구술자명	조은애	면담자	정은주		
면담장소	숭의쌈밥	면담지원	이혜숙		
면담 일시	2021년 11월 4일	회차	1	시간	16분 51초
자료번호	MichuholCA-07-00000888				
구술 개요	알바를 한 가게를 인수하게 됨, 모든 메뉴를 사장님의 손을 거쳐 나옴, 메뉴는 변함없지만 반찬은 한두 가지 정도 바뀜, 손님이 원하는 건 들어드리려고 하는 서비스 정신, 친절함과 변함없는 음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주요 색인어	고향, 인천, 토박이, 쌈밥, 인수, 쌈, 알바, 경영, 사람, 종업원, 계절, 밥상, 반찬, 나물, 전라도, 쪽땃, 엄마, 코로나, 친절, 서비스, 재료, 아들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시작하게 된 계기				00:00:00~ 00:02:35	▷기록기획안 ▷구술활용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음성파일 ▷기록검수확인서 ▷녹취문
- 고향이 인천. 가게를 한 지 5년 쯤. - 이 가게에서 약 6개월 정도 쌈을 놓는 알바를 했었음. 지인이 그 만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수하게 됨. - 일터에서 종업원들과의 미묘한 관계가 있는 것이 가장 힘들.					
2. 메뉴				00:02:36~ 00:04:06	
- 고추장 쌈밥이 가장 인기가 많고, 우렁쌈밥, 간장제육 순으로 많이 나감. - 모든 메뉴를 사장님이 혼자 하시기에 메뉴는 추가하지 않고 변함 없음.					
3. 반찬				00:04:07~ 00:08:07	
- 오래 장사를 한 노하우로, 오는 분들의 양에 맞게 반찬을 제공함. - 나물 종류 한두 가지는 매일 바뀌는 편. - 엄마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음식에 관심이 많았음.					
4. 기억에 남는 일				00:08:08~ 00:11:17	
- 손님 중 딸과 같이 온 엄마를 보면 병실에 누워있는 엄마가 생각 나서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듬. - 오픈하고 2년은 이전 주인보다 두 배의 매상을 기록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음.					
5. 사장님의 철학				00:11:18~ 00:13:31	
- 손님이 원하는 건 들어드리려고 하는 서비스 정신, 친절함과 변함					

없는 음식이 중요함.		
6. 마무리	00:13:32~ 00:16:51	
- 앞으로 건강이 닿으면 5년 정도 더 할 생각. - 아들이 입버릇처럼 물려받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진 반신반의 함.		